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헌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14('22-4) | 2022. 04. 01.

재향군인회에 바란다 - 향군 발전기여 포상 확대와 홍보 필요
박순제

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의 과제
신경수

재향군인회에 바란다

- 향군 발전기여 포상 확대와 홍보 필요 -

박 순 제

(대전 대덕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포 상 사 례

#1. 충남 보령시 재향군인회장이 2020년 12월 22일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지역 봉사활동 우수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보령지회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버스 승강장, 공중 화장실, 재래시장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방역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2. 대구광역시 대구동구회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2021년 11월 5일 <2021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서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장이 2021년 12월 20일 부산시장으로부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모범선행 시민상을 수상했다.

#4. 경기도 화성 및 오산시 재향군인회는 2022년 3월 8일 수원대 학군단 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소위로 임관하는 신임 장교단에게 표창장을 친수하고, 앞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간성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의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 위에서 열거한 <포상 사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재향군인회 지회들이 받은 것 중 언론에 보도된 일부이다. 당연히 이밖에도 선행 포상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한 지회들이 무수할 것이다. 다만 언론보도가 안됐을 뿐이다. 언론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나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기사 위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밀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향군인회 <정관> 제82조(표창)에서는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또 ‘제84조(시·도회장의 표창) ① 시·도회 및 지회, 시·군·구회 및 연합분회의 장은 제82조 규정에 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그래서 향군 본회에서는 작년 2021년 1년 동안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약 900여회의 포상계획을 세워 집행했다고 한다. 정관에 따라 본회 외에 국내·외 지회 등에서도 포상을 했을 것이다.

향군 지회가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 포상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포상이란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주는 것이다. 포상이 많아지면 결국 향군의 선행활동도 더 많아져 선순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진구 지역 주민들은 위의 언론보도를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부산진구에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있었네. 이들이 이런 일을 해서 모범선행 시민상을 받았다고 하네. 대단한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부산진구 향군에 대한 이미지는 한층 긍정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그래서 언론보도의 원칙 중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보도를 하게 되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포상범위 확대와 함께 포상 받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가령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군 TV>나 <코나스>, 모바일 앱, 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별 선행과 포상자 등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군의 선행모습을 좁게는 회원들에게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역시 선순환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재향군인회가 국내 최대의 예비역 안보단체라 불리게 된 것은 지난 7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내부를 한 번 둘러봄이 바람직하다. 3천 개 이상의 지역별 지회는 향군의 풀뿌리다. 어느 조직 예하에 3천개의 지회가 있겠는가. 3천개의 풀뿌리 향군 말단 조직들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각자의 지역에서 향군의 목적에 맞는 선행을 적극 그리고 꾸준히 펼치고 있을 것이다.

1년에 한번뿐인 <정부포상 국민추천> 제도와 향군 대회장, 향군회장 등 권위 있는 시상도 있지만 풀뿌리들은 수시로 향군회장이나 지회 회장 등 표창을 받기를 원할 지도 모른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년 향군 지회장들을 대상으로 향군발전에 공이 크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을 ‘자랑스러운 향군인’으로 선정하여 ‘자랑스러운 향군인상’을 수여하면 회원 전체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조직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향군 회원 들은 물론 지역주민,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으로 발전하고 향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70주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의 과제

신 경 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전 주미국방무관)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전략서 발간

미 백악관은 2022년 2월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백악관 이름으로 구체적인 전략 목표, 추진 방법, 행동과제를 담은 전략문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 백악관의 인도-태평양전략 발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적 무게를 쉽게 짐작하게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문서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미국에게 3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9,000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뤄지는 인도-태평양지역은 미래에도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지역임을 강조했다.

미 인도-태평양전략 개요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도전이 자유롭고 개방된 기존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통합하여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의 이익, 공유된 가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 연결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맹 및 우방국, 역내 기구들의 집단능력(collective capacity)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 인도-태평양전략의 두 가지 특징

① 다자안보협력의 중심(AUKUS & QUAD) :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 억제력 강화를 위해 안보의 핵심 축으로 AUKUS(호주, 영국, 미국)를 부각하고 있다. 머지않아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빠른 시간 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수중능력에 있어서 AUKUS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다자협력 구상이다. 쿼드 참가 4개국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쿼드 펠로우십’이다. 참가국들은 2023년부터 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교육(STEM) 분야에 대학원생 1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②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구현 :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해 통합억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 및 우방국 관계를 최고의 비대칭 능력으로 간주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과 함께 전쟁 영역은 물론 분쟁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노력의 통합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동맹 및 우방국의 능력을 견고하게 통합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한다는 구상이다. 미군은 통합억제를 구현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신흥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전략의 북한위협 평가 및 대응

미 인도태평양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과 함께 기타 주요 위협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및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지만, 북한의 인권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북한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격퇴하기 위해 한·일 협력,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과제

미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중국 견제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미 인도-태평양전략은 이러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핵심 행동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한·미·일 3국 협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안보는 물론, 지역개발, 핵심기술 및 공급망 협력, 여성 권위신장 등을 주도해 가야한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된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미 인도-태평양전략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에 동맹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통합되고 있고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첨단 기술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기존 국제질서와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중국에 대해 동맹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